

# 들노래에 젖으니 온세상이 '하나'

## 산문박의 禪

통명농요 기능보유자 이상휴 씨

(선소리) 아부레이 수나 (뒷소리) 아부레이 수나 이이도 여이 수어 (선소리) 예해 한불종자 썩이나서 만곱쟁이 열매맺는 슬기로운 이농사는 하늘땅에 조화로데이 아부레이 수나 (뒷소리) 아부레이 수나

이 노래는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통명농요(중요무형문화재 84호)의 한 구절이다. 옛부터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 신명이 나면 이몸모를 썩노래를 흥얼거렸고, 힘들고 고달플 때면 탄식조의 가락을 내뱉었다. 그 소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농요가 됐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는 노래로 모를 심고 노래로 논을 매고 노래로 타작을 하는 농요의 마을이다. 사시사철 들노래가 들관가득 들려 오다가 농사일에 따라 적절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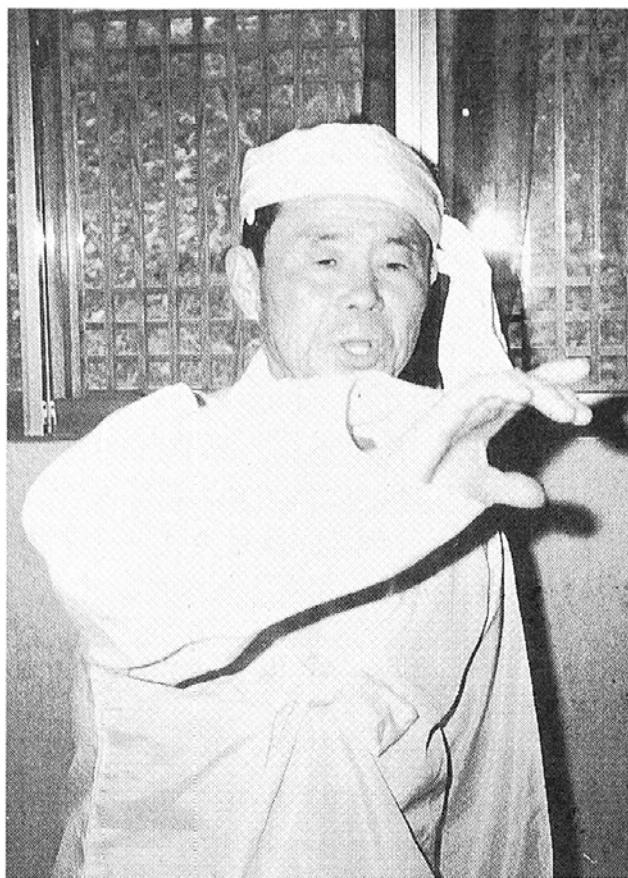
통명농요는 선소리와 뒷소리, 사물놀이로 의한 농악등 40여명의 농군이

는 스스로 농요를 즐길 뿐이다. 그 강제성없는 즐거움이 농군들을 전념(全念)시킨다. 그에게 있어 화두란 따로 없다. '항상 즐겁게 사는 것'이 화두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직접 노래부르고 춤추는 지휘봉없는 지휘자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절대경지에서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마술사다.

'예해에 예해예해에 사람마다 선비되면 농사지을사람 누구이고 아영헤

**"한톨종자 썩이나서 만곱쟁이 열매맺는 슬기로운 이농사는 하늘땅에 조화로데이"**



# '나' 버리고 내는 선소리에 뒷소리 조화 저절로

만드는 소리로 이루어진다. 그중 선창을 담당하고 기획을 이끌어가는 선소리가 가장 중추적이다. 현재 통명농요 선소리 기능보유자 이상휴씨(64세). "노래를 부르면 그냥 좋아서요. 농요관을 따라다니다 보니 저절로 되더군요."

그는 전대 보유자인 함봉준선생으로부터 배운게 아니라 스스로 체득했다. 농요는 고유한 토속적 맛과 멋이 없으면 쪽경이에 불과하다. 이 맛과 멋은 머리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선소리에선 땀과 목마름이 구수하고 갈수록 맛이 느껴진다. 그의 선소리에선 모를 심고 독촉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그저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자는 심산이다. 예르고 장단 맞추다 차츰 신명이 오르면 모심는 동작은 어느새 춤동작이 되어버린다. 모종도 덩달아 춤을 춘다. 농관은 순박한 농심(農心)과 흥겨운 농으로 절연하게 젖는다.

또한 그의 선소리에는 '나'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쁨 해학 그리고 더불어 함께 들어가는 리듬성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농군들에게 즐거움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영해에' 모심기 소리, 논매기 소리, 논을 다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 집으로 오면서 부르는 소리, 타작 소리등 모두 5소절의 8곡으로 구성된 통명농요가 다른 농요와 다른점은 선소리와 뒷소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2중창과 같이 불어진다. 그래서 더욱 흥겹다.

통명농요는 듣고 감상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현장에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어울리도록 만드는 놀이다. 농사와 놀이의 구분이 없어진다. 농악과 노래와 농군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지야 하는 집단적 동선(集團的 動線)과도 같은 농요의 중심에 이농의 선소리가 있다. 그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그는 '나'를 빼고 노래 부른다.

지난 70년대중반 국민학교 교사인 강원회씨에 의해 통명농요가 처음 발굴된 이후 79년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녀 출전하기까지 그는 술한 잔과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못꿨다. 그의 부동심은, 그리고 그의 선소리가 지닌 즐거움은 모든 장애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이 대회에서 통명

## "농악·소리·농군 어울어지면 모종도 덩달아 춤추는 듯"

농요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의 선소리를 들노라면 영당어와 어께가 저절로 들쭉인다. 함께 어울리지 않고는 못배기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38명의 통명농요 회원 중 2~30대는 단 3명뿐. 40대도 젊은이 에 속한다. 대부분 5~60대인 이들이 부르는 농요는 삶의 맛과 멋이 배어있는 진귀의 소리다.

그의 선소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소리인 '캠마롱농노오세'에서 절정을 이룬다. 일이 끝난 안도감과 휴식의 기대감으로 기쁨은 배가 된다.

노세 노세 캠마롱 농노오세/낙락장송 고목되니 캠마롱 농노오세/눈먼 새도 돌아간다 캠마롱 농노오세/풍음을 식 지어지니 캠마롱 농노오세/머뭇노에 더되는가 캠마롱 농노오세/노세 노세 노오세 캠마롱 농노오세/우리가

들면 얼마나 노나 캠마롱 농노오세. 저녁놀이 들관을 붉게 물들이고 미류나무가지가 바람사이로 살랑거릴 즈음, '캠마롱농노세'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면 그 기분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법일 게다.

일이 끝나고 귀기어린 얼굴색이 노을빛을 담아있는 그때 단심(丹心)으로 부르는 '캠마롱농노세'는 들관을 흥건히 적시면서 매아리쳐 나갔다. 이때 팽과리는 노래부르고 장구의 춤을 추며 북과 징은 장단을 맞춘다. 상머슴은 소를 거꾸로 탄채 재밌게 겨우 샅갓을 뒤집어 쓴다. 그리고 군무와 합창의 행렬이 뒤풀린다.

"은 세상이 다 내것이였지요. 매미소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예천=이윤호 기자



## 원인 알면 결과가 보인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꼭 한탄 해보는 것이 있다. 한해의 운세를 보려고 토정비결을 보는 일이다. 양지바른 길가에서 도수높은 인경을 끼고 토정비결을 보는 노인앞에 응기흥기 둘러앉아 사주를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지하철 어귀에 설치된 컴퓨터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다.

사실, 내일을 예견하는 사람이 세상천지 누가 있는가. 그리하여 당사주, 주역, 토정비결, 아니 00보살, 00도사를 찾아가서 택일, 궁합, 진화, 사업 등을 물어보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다. 제 앞날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점, 관상, 사주를 보러가는 사람이 있을까. 어제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오늘의 약속도 깜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딱쳐오지 아니한 내일, 미래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욕심은 오늘보다 내일을

회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곳에 부도덕 비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초적인 오류를 진단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시류에 앞서가는듯 방만한 방송을 하고 있으니 어디로 가는 배인가. 심약하고 욕심 있는 자가 천문이나 운수에 매달려 보려고 온갖 물결이를 하는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 뿐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길밖에 없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8

**예언(豫言)**

나인의 예를 들어보자. 원인의 의지에 사복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결과로 사악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은 정칙이다. 원인의 씨앗에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이 합장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진·선·미의 세계로 배태 성숙한다는 것은 예언적 말을 들어보지 아니하여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언이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다. 그 반반은 누구든지 알

다 내일을 희구 하는 자기미래 볼 수 있는 해안 가져야 할까이다. 회구의 갈망이 높아지면 갈수록 내일을 미리 알고 싶은 충동이 반비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역습을 뒤집어 쓴다. 나서는 마음이 요동하게 된다.

오늘날처럼 초과학시대에도 점성술이 세상에서 관을 치고 있으니 웃음을 금치 못한다. 또한 일간지의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언론사에서 버젓이 '심야대담' '추적60분' 등으로 예언자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으니 더욱 아연할 뿐이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흑세무민이 판을 치게 된다. 왜 대형사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안이 있을라치면 예언적인 예고에 관심을 쏟아

려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세상에서는 온갖 잡스러운 일들이 야기되고 있다. 언론사가 예언적인 문제에 민감한 것이다.

이러한 미신적 요소를 공공 언론기관에서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미신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가공할 오류인 것이다. 정치적 미해결점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이 치정의 방법에 잘못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검토 연구하여 민생치인의 길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제가 잘못 되었다면 경제구조, 노동문제, 유통체계, 생산방법을 근원적으로 연구하여 경제적 해결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가 혼란하면 사나 사람들은 반반의 수수께끼에 잠깐 잠포대하는 것이다. 예언을 벗어난 세계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예언(豫言)을 갖는 것이다. 원인에 무엇이 합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 확인은 남의 점술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원인에다 정직과 성실을 알차게 채워 놓았느냐고 반문하는 길이다. 항상 자신이 원인의 씨앗에다 삼의 참뜻을 가다듬어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면 자기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거러나 지하철에서 토정비결 컴퓨터점 운명을 보는 잘못도 없을 것이고 정치도 정직하게 하면 세계의 운세를 살펴보는 어리석음도 사라질 것이다.

금년, 丙子年(병자년)부터 12년간 大運(대운)을 얻고자 하는 佛子는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받을 수 있는!

# "신비의 불탑다라니를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표본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을 사용하여 제작  
규격 : 62cm x 160cm

■ 구입가격 : 불탑다라니의 공덕과 효험적 가치는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일정한 가격이 없으며, 또한 인연따라 구해지는 것이기에 사람마다의 입장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에 구하셨든 구하는 시점에서 값은 일체 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얻은 공덕과 효험이 사라질겁니다.

**"조상경을 천도하고 악령을 퇴치하고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주는 불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1996년 丙子年(병자년)은 아들(子)자신 귀머리로서 태양의 정기인 양기와 땅의 지氣(지기)인 음기를 음, 양의 조화로 맞추어 안으면 大運(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12년의 運(운)에 시발적인 대세지운의 해이기도... 특별한 효험을 나타내는 음, 양의 조화 속에서 더욱 길(吉)한 運(운)의 정기를 생체(생체)해야 하는 해이며, 나쁜 액은 물리치고大吉(대길)한 생기는 상합해서 入財(입재)해야 하는 해이다.

그러서 모든 불자에게 96년 병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12년간 역살, 우환, 재앙들이 가내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덕력으로 온 집안에 형통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원만히 성취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선 음, 양의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이 그동안 수많은 영험력을 스님들과 불자들을 통하여 경험한 금강경신탑다라니와 이번엔 금강 대덕법사가 고승 조상하여 세상에 現化(현화)하게 된 다보불탑다라니가 불보살님의 가피력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신비의 불경(佛經)탑다라니임을 알게 되어 이를 100% 경면주사만을 사용하여 두 쌍의 불탑다라니를 조성함으로써 여기에서 부처님의 본래의 참모습과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우주적 생명인 강력한 氣(기)의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하여 인체에 氣(기)를 불어 넣어 부처님의 상주불변하는 신비의 가피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석가탑과 다보탑이 바로 부처님의 상주불변하는 조화의 이치로 세워져 원년 신라의 불교문화 꽃피웠듯이, 현재에서 우리 불자들이 금강경과 같은 지혜를 뜻하는 금강경신탑다라니와 一乘(일승)을 뜻하는 묘법연화경(법화경) 다보탑다라니를 같이 소장하거나 사용했을 때 이아말로 佛經(불경)탑다라니의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더불어 완벽한 음, 양조화의 이치응화로 병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2년간은 소원하는 바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에서 그 복의 과보를 100% 받을 것이다. 즉 두 쌍의 불탑다라니를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보면, 금년부터 각자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것은 실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으로 누구나 직접 체험하라라 본다.

한시라도 몸에서 영험력과 가피력이 증한 불탑다라니를 메어 놓지 않고 부처님 말씀은 온몸에 청정 감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누웠을 때는 지절로 깔고 덮여지는 형상이 되므로 이불이나 요속에 잘 퍼져 넣고 자면 자신도 모르게 두터운 입장과 역년이 소멸되고 소원하는 바를 바로 이루는 큰 복덕을 얻을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라면 틀림없이 큰 효험을 볼 것이므로 꼭 사용해보기 바랍니다"**

- 1)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다)
- 2) 사업이 어려워되거나 실패한 사람 (귀인이 나타나 큰 도움을 받게 되고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한다)
- 3) 삼재(삼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 4) 무엇이든 꼭 이루어야만 할 강렬한 소원이 있는 사람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도꾸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 5) 정신질환자는 완치된다.
- 6) 대학입시생이나 수험생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시험일에 실수율이 적어 원하는 대학에 가서 다 합격하게 된다.)

\* 상기 사례는 스님이 그동안 금강경신탑다라니(圖)만 가지고 실제로 효험을 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구입시 자세한 사용방법 및 실증사례집을 보내 드립니다.)

■상기 두 쌍의 불탑다라니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앞에서 氣(기) 테스트 결과, 그 지체에서 각각 엄청난 우주의 氣(氣)에너지가 방출되어 입증되어 놀라운 가운데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해도 큰 효험이 있으나 같이 사용했을 때는 음, 양의 조화(이치) 더욱 강한 氣(기)가 방출되었습니다. 이 氣(기)가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주면서 여기에 불보살님의 위신력이 함께 작용하여 나쁜 운세를 물리치고 인운을 길하게 해주고 양기를 천도시키고 악령을 퇴치시키는 영험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불탑다라니 영험력 = (지체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氣(에너지) + (불·보살님 위신력·가피력) + (스님들의 기도법력)**

**특별보급계획**

- ① 스님들께만 본 불탑다라니에 대한 기(氣)테스트방법, 운기(運氣)의 강·약 체크방법, 영(靈)의 관계 제조방법을 상세히 서술한 책자를 드립니다. 이 방법을 잘 익히셔서 신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실때 실제 영험이 있을을 확신시켜주므로 환희심을 가지고, 모두 사용하게 되어 큰 공덕과 복덕을 주시는 셈이 되며, 스님들께는 이것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의 원가선으로 보급과 합니다.(구입시 신도수대로 불탑다라니 영험력 사례집도 같이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에서는 바라밀전강연구원 원장님이신 각광스님을 모시고 각 도(도)별로 사찰을 방문하여 스님들께 기(氣)테스트 방법 등을 각광스님이 직접 전수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 ② 홍보기간 동안 구입을 원하시는 불자들에게는 특별보급가격으로 드립니다. (4매 이상)

구입문의 및 상담 : **성지관음회**  
부 실 : 불교바라밀전강연구원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리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0342) 706-3060